

벼 직파 재배, 모내기보다 생산비 10~20% 절감

농협전남본부 컨설팅 연구 결과

해마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웃을 수 없다. 걷어드리는 쌀 보다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매년 쌀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의 해결책으로 벼 직파 재배가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어린 묘를 키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논에 벼를 뿌리면서 인건비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25일 “(사)한국직파협회에 컨설팅을 의뢰해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벼 직파재배는 육묘단계를 거치지 않아 생산비를 10~20% 상당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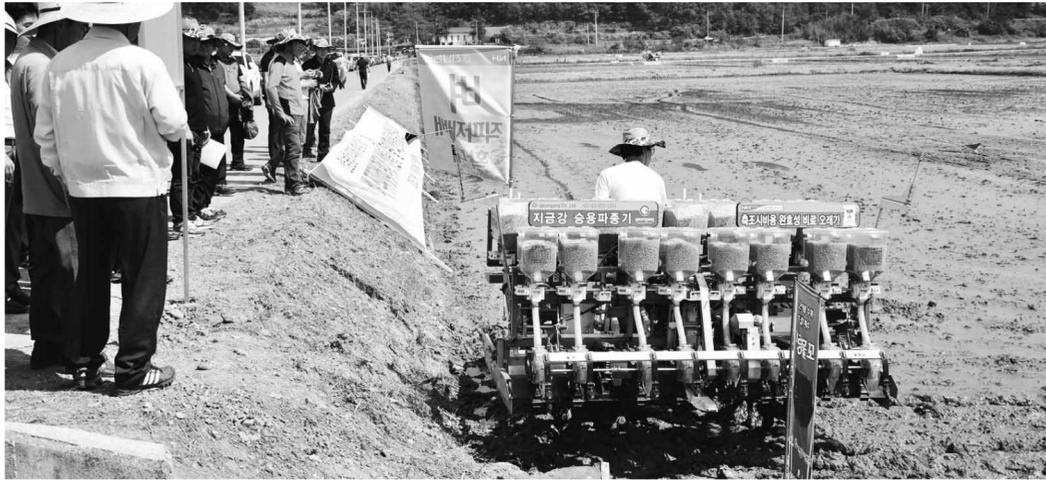
과거 국내는 논 한 쪽에 모판을 만들어서 40cm가량 모를 키운 뒤 손으로 논에 심던 것을 기계가 도입되면서 육묘장을 이용하게 됐다. 육묘장에서 어린 모가 10~15cm가량 자라면 이를 논으로 옮겨주고 이앙기로 심었다. 하지만 모판을 논으로 옮기는 등의 인건비 등 비용이 추가됐다.

논에 직접 싹을 틔운 벼씨를 뿌리는 직파는 이런 추가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손으로 뿌리다 모가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 생산량이 떨어져 농민들이 꺼려왔다.

하지만 최근 일정한 간격으로 벼씨를 뿌릴 수 있는 기계가 개발돼 고르게 벼씨를 논에 심을 수 있게 돼 직파 농업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직파 농업은 수확량과 품질은 기존 이앙법(육묘에 의한 파종)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협전남본부는 앞서 지난 2014년부터 나주



벼 직파 재배가 기존 농법에 비해 생산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초 나주 동강 옥정들녘에서 벼 직파를 하는 모습.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나주 동강면 990ha 재배 ... ha당 73만원 줄어

수확량 증가하고 병충해 감소 ... 도복피해도 ↓

동강 옥정들녘 등 관내 20개 농협 422 농가 990ha의 논에서 직파재배를 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 결과, 벼 직파재배의 효과는 대단했다. 직파재배 비용은 1ha 108만원이 드는데 비해, 이앙재배 비용은 181만원에 달한다. 직파재배를 통해 생산비용을 1ha 73만원이 절감되고, 쌀 생산비도 10.6% 하락 효과가 있었다.

쌀 수확량도 직파재배를 하면 1.4% 증가했지만, 병충해 발생은 줄고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도 감소했다. 직파재배는 지난해 전남지역을 덮친 벼가 수확 전 싹이 나는 수발아 피해에도 강했다.

농협 전남본부 조기영 차장은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최종 목적은 농번기 부족

인력난 해소와 쌀 생산비 절감 그리고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2017년에는 벼 직파재배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2.9kg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내년이면 60kg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 약 18kg이 감소했다. 10년간 쌀 소비가 22% 줄어든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관원, 전통시장 126곳 원산지표시 실태 평가

광주 양동시장 ‘우수’ 200만원 상품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민)은 25일 “전국 전통시장 126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등을 평가한 결과 광주 양동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2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수시장으로는 전북 군산공설시장, 강원 정선시장, 충남 금산인삼약령시장, 전북 익산서동시장, 서울 우림시장, 부산 좌동시장, 대구 관문시장, 대전 문창시장, 경기 수원원곡시장, 충북 정주가경터미널시장, 제주 동문재시장 등이 함께 뽑혔다.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선정은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전국 12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9~11월에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등을 통해 진행됐다.

앞서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를 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

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MOU를 체결했다. MOU 전통시장별 소비단체 회원을 책임담당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고, 매월 2회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 시장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중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시장상인회와 합동 캠페인을 열고, 원산지 팻말·표시판도 지원하고 있다.

농관원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부진한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2013년부터 평가제를 도입, 우수시장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차와 2차로 나눠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병행하여 1차 평가에서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상위 17곳을 선정 후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2곳을 우수시장으로 선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은행 방문만으로 대출상담·보증신청 한번에 해결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광주신용보증재단 협약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방문 신용보증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귀남 농협은행 광주본부장과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날 광주신보재단 회의실에서 은행 방문만으로 대출상담과 보증신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신용보증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광주신보재단 방문 없이 보증상담

과 서류접수를 농협은행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출이 필요한 광주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무방문으로 농협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김귀남 영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한층 강화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트럼프 정부 출범 환율 강세 예상

실적 모멘텀 반도체·화학업종 기대

저점 매수 역발상 투자 고려할 만

미국대통령에 트럼프후보가 당선된 이후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일본니케이지수도 급등하며 2만선에 근접 했지만 코스피지수는 박스권에 갇혀서 2050선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다우지수 밸리 배경에는 법인세인하 등 감세기대와 인프라 투자확대, 규제완화 등 차기 도널드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라 할 수 있다.

반면 국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가 부재한 상황이다.

유일호경제부총리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좀 더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스피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9개월만에 1200원을 넘어섰다. 달러강세 영향으로 이머징국가에서 자본유출 우려와 함께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자금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제한되는 모습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지난주말 미국 10년물국채금리는 2.54%로 한국 10년물국채금리 2.11% 보다 높아졌고 최근 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다. 국채금리가 역전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자금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제한되는 모습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환율은 단기 하락전환 보다는 연초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달러강세 기대감이 이어지고 1월초순 발표되는 중국의 12월 외환보유고가 6년만에 3조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 1월 초 1200원대 초반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등양상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정부 출범을 전후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금리 상승기에 채권보유는 투자손실을 초래한다. 이런시기에 투자자금은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의 강세에도 영향을 주었다.

내년도 국내 증권시장을 어렵게 보지 않는 것도 선진국증시의 강세와 함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주에도 업황과 4분기 실적모멘텀이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업종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을 맞아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한 매수는 가능해보인다.

또한 28일 배당락에서 과도한 주가하락을 보이는 종목의 경우 1월초 빠르게 회복 될 수 있으므로 저점 매수하는 역발상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급, 싸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남평, 최고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에서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80만원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층 지상4층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61개
- 법인체 인수 가능
- 동업 운영 하실분 환영
- 리모델링 중 (4억예산)
- 매매 - 협의
- 대출 - 8억 있음
- 감정가 - 현재 15억
- 주인직매 H.010-3605-5000